

< 노 설 >

한달간 치른 홍역의 교훈

1달여 동안 혼란을 일으켰던 조직개편이 일단락 마무리 됐다. 결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된 지역본부 및 현업기관은 현행 유지하고, 본사의 일부 개편이 단행됐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승리라고 자축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노동조합 투쟁의 원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이 와해되고 KT조직의 혼란과 함께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조직개편의 부당함이지만, 배경과 과정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처음에 현업에서 조직개편안 마련 중이라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먼저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다. 사측에서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진행중인데,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연막을 피했다. 그리고 다음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황당하기 그지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졸속적인 밀실 조직개편안이었다. 노동조합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 이용경사장의 국제회의를 이유로 장기간 외유... 노동조합 정의발생 결의...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노동조합을 KT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낡은 노사관, 무책임한 개편안이 빚은 노사갈등이었다.

이는 노사가 사전에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가? KT전체가 큰 1달간 슬럼프거리고, 직원들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노사갈등을 즐기듯 보도했으며, KT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간부 철야농성, 지부장 및 분회장 분사 농성, 전국의 대의원과 조합간부가 눈이 쏟아지는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를 위해 대전에 집결하여 힘찬 정의발생 결의...

경영진의 노사관계 마인드 부재가 가져온 엄청난 손실이다. 이제 우리는 1달간의 홍역을 통해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현업 정서를 반영하는 경영, 열린 노사관계의 정립이다.

민영원년을 맞는 2003년, 사측은 첫 출발부터 노사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출범 초기 이용경사장이 밝힌 모든 사항을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측이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노동조합 또한 그에 걸맞은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 투쟁에서 보았듯이 사측이 구태를 반복한다면 상생의 관계보다는 대립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변화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보다 자발적일 때 그 빛을 더욱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찔던 만큼 성장하는 KT 노사관계,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노사문화의 정착과 민영KT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희망해 본다.

- 강세홍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

알고 싶어요

PDA, 통신보조비·네스팟 이용료 등 지원

1. PDA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할 수 있는가?
사측에서는 각 PDA에 지사별 시리얼번호를 관리하게 할 것이며, 회사 이미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PDA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인 양도(매매)는 할 수 없다.
2. 현장 요원의 경우 PDA 지급이 개인선택 기종이 아닌 특정기종으로 단일화하여 일할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가?
회사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무처리용도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RIMS프로그램 개발이 원활/해피콜 조기사행을 위해 3개 기종 모두에 적용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되고 유지보수 등을 위해 단일기종 선택이 불가피해, 자체 검토결과 사이버사의 POZ으로 선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현장요원 PDA를 RIMS폰으로 활용함에 따라, 타분야 직원들과의 차별에 따른 우대방안이 무엇인가?
우대방안으로 사측에서는 통신보조비 52,000원과 네스팟이용료 10,000원 지원 및 추가데이터 이용료는 전액무료, 부속품(목걸이, 가죽케이스), 파손 및 고장시 유지보수비용 회사 부담, 업그레이드, 성능향상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8대 집행부에서는 현장 요원에게 지급된 PDA에 타사 PDA와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것을 요청하여, 64M 램 수준의 SD카드 추가 확보하였으며, 전직원의 우대방안으로 AP 사용자(10,000원)를 사업용으로 처리하여 면제키로 했다.
4. 현장 요원이 업무전환시 다른 단말기 지급을 하는 것인가?
사측에서는 업무 전환시 다른 단말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자금지원, 이자율 어떻게 되나요?

- 이자율**
가) 기존 7.5% 이자 대부자 전원 → 이자율 3.8% 적용
나) 향후 신규 대부자 → 이자율 3.8% 적용
다) 시행월 : 2002년 7월
기존 2% 이자 대부자 → 2003년 1월부터 3.8% 적용
1. 1999년 6월 이후 이자율 7.5%적용자에 대한 차액 보상방법은?
이전 이자율(2%)과의 차액(7.5-2=5.5%)은 현금으로 이미 지급.
※ 7.5% 이자 부담 월수 계산할, 단, 퇴직자 및 전액상환자 제외
 2. 보상후 이자율은?
차액보상금 지급과 동시 이자율은 3.8% 적용(2002년 7월)
 3. 향후 주택자금 대부예정자의 이자율 적용은?
2002년 8월 이후 주택자금 대부자의 이자율은 3.8% 적용되며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함으로써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4. 1999년 6월 이전 대부자(2%적용)의 향후 이자율은?
2003년 1월부터 3.8% 적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용함으로써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5. 2%를 3.8%로 이자율을 인상 시키는 것인가?
아니다. 2% 적용자도 주택자금 이자 2%와 연말 정산시 인정상여 9%에 대한 소득세 20%를 추가로 냄으로서 사실상 3.8%의 이자를 부담해 왔다.

-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진행될 듯

노동조합,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노동과 세계>

노향래 <전 공공연맹 법규국장>

기대속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강력한 지지의지로 뭉친 시민들의 역동적 참여와 후보 자신의 "원칙과 상식을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론 선거승리였던 만큼 기대는 당연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 제대로 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새 정부 출범에 환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노동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짧게는 지난 5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어떤 부분은 이어지겠지만 또 일부는 새로운 정책들이 모색되고, 그에 따라 노정관계·노사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각 부분의 변화가 노사관계, 노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마침 2월 13일 노무현 당선자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서 양 노총의 지도부와 대화하면서, 거듭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안하고 개혁적 국정운영을 다짐하기도 했다. 실로 지난 55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국정 책임자 지위의 당선자, 또는 대통령의 노조 사무실 방문이었다. 물론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방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일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소외의식'을 방치해왔던 과거를 넘어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읽을만한 방문이었다.

이렇듯 기대할만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노동정책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고,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 방향을 세기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동정책, 사회통합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질 듯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공약을 통해서, 그 후로는 인수위원회 차원의 노동정책 과제 설정 논의를 통해서 향후 노동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확대를 전제로 한 사회통합의 구현 △일자리 확대(연 50만 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노동정책의 큰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해왔다. 특별히 주목할만한 것은 '차별철폐'를 가장 앞서는 과제로 삼아 '사회통합정책 차원에서 노동정책을 펴겠다'는 약속이다.

노동행정의 초점이 정확히 1,400만 노동자,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놓을 수 없는 비정규직,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열위에 있는 계층을 주목하겠다는 약속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고마운 것이다. 그간의 노동정책이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노동자들(결국 노조)과 정부의 길항관계로 인식되어온 폐단을 극복하고 정부부터 앞서서 적극적인 소수자 보호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원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력을 높여내고, 시민들의 피부에 개혁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느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부독재통치를 뿌리치고 민주개혁의 길을 걸은 지난 15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형적으로는 발전해왔으나, 본배구조, 사회통합력 등에서는 더욱 악화되어 심지어는 '민주화의 폐단'으로 인식되고 있기까지 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민주화

필수목, 노동조합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의 최저선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가 여전하고 심지어 확대되기까지 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파악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평가할 만한 비전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여성·실업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실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도 하다. 또, 노동시간 단축 등 전체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개선하고 모성보호, 육아 사회적 책임 원칙의 정착을 위한 전향적 여성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서비스부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요구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의 전환은 바로 이 땅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다. 그리고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노동조합 스스로 냉정한 자기 진단 있어야

노동정책의 변화는 노사관계의 핵심주체인 노동조합의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고, 또 노동조합 스스로도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방향을 가늠해서 스스로 자신의 요구나 행태를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난 5년(소위 '국민의 정부' 5년)

노동조합은 구두선처럼 '비정규직' 문제를 말했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부정적 추세를 저지하고,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세우는데는 실패했으며, 심지어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유로 정권과 자본을 비난할 줄은 알았으나 해결대안이 무엇인지는 잘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사회개혁'의 전망을 스스로 방치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전망은 더욱 더 사업장 단위로 수렴되었다. 사회 각 부문에 산적한 현실에서의 개혁과제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이념적 구호로 대체되었고, 교육, 언론, 환경, 기업관행 등 각 부문의 개혁은 노동조합 일상활동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당연히 사회 각 주체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역시 악화되었다. 노동법 날치기에 맞선 총파업 투쟁 당시 노동조합에 향하던 노동조합 외부의 여러 사회세력의 관심과 기대는 5~6년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의 집단이거지적, 자기중심적 활동에 대한 실망'으로 반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내부 통합력, 즉 조직력 역시 냉정한 평가를 요한다. 지도부와 대중의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지도부의 이념주의적 편향과 조합원 대중의 실리주의적 안주가 결합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성찰 역시 절실하다. 모든 변화는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신 변화시키므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운동'의 핵심요소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남 탓' 하고 말 일아 아니다.

노조가 스스로 이끄는 노사관계의 전환 기대 돼

좁게 현실의 문제로 보면 얽히고 쌓인 문제는 한이 없다.

정부는 점점 노동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노동자들이 체벌, 취업 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원조자로 인식되어야 할 노동행정당국이 여전히 집단 노사관계에서 '공권력을 이끌고 다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그러하다. 현실의 노동조합은 그나마 '밥술이라도 뜨면서', 냉엄한 사회속에서 그나마 버틸며 재간이라도 있는 노동계층이 자기 생존을 위해 버티면서 '남 탓 하는' 근거지로 인식되고 있기까지 하다.

사용자는 천민자본주의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여전히 전근대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천박한 자본의 행태를 지속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경영 주체'로 자신을 세우지 못한 채, 지금도 과거지치기 기존의 못된 관행을 지속하면서 변화 요구에 저항하는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제 함께 전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전환을 새 정부가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

"비정규직,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열위에 있는 계층을 주목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흔히 지난 5년을 진단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신자유주의 기조의 반개혁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집권세력에게 오늘 노사·노정관계의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쉽게 평가한다. 이런 평가에 의하면, 오늘 노사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에게 있고, 정부의 정책 변화만이 새로운 전환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남게된다. 과연 그러인가.

지난 5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평가를 요한다. 특히 현 노동정책의 전환을 다짐하는 새 정부로서는 반성적 성찰 역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지금 현상 노동자들의 일반적 평가가 매우 비판적인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속화하는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이중구조화 상황을 방치하고, IMF 위기를 이유로 기업활동 보장 및 투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노동정책을 종속변수로 두는 오랜 관행을 온전시키므로써 노동현장 상황의 악화를 방치하고 확대시켰다.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고질적인 노사갈등이 거듭되었고, 손배가 압류 소송,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의 확대 등 법원의 보수적 행보가 더욱 뚜렷해져 노동조합활동의 합법적 공간이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은 악화되기까지 했다.

이런 조건에서 노사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조합은 어쩌었던가. 그렇게 노동현장이 악화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의 전망은 더욱 협소해졌고,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요구와 과제의 구체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신뢰는 더욱 악화되었던 점에 대한 노동조합은 동 주체들의 냉정한 성찰 역시 절실하다.

기도 하다. 아니,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인 한, 스스로 전환을 준비하고, 정부당국에 요구하면서 자본과 싸워나가는 주체로 자신을 세우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노동조합의 과제를 새겨보도록 하자. 우선 조합원에 충실한 노조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이끌어, 기업단위, 산업단위, 국가단위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조여야 한다.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올바른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이끄는 노조여야 한다. 고용시장의 변화, 기업 구조조정, 산업의 개편 등이 여전히 계속된다. 변화에 반대하는데 머물지 않고, 변화의 방향을 먼저 가능하고, 노동조합의 원칙을 바로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일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속의 조직인 한, 사회개혁의 요구와 호흡을 함께 하며,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실현해 낼 때만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언론개혁, 남북화해, 교육개혁, 사회복지활동 등 개혁적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여내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이러한 활동 관점이 조합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런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환은 노동조합이 오늘 한국사회에 놓인 처지에 대한 자각 위에서 가능할 일이다. 눈을 들어 사업장 밖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6일 전국대의원대회

민영KT원년, 노동조합의 나아갈 길 제시할 것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대의원대회가 지리산수련원에서 열린다.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의 한해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원이다.

올해 대의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민영KT 원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의원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위상 및 존립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참가하는 대의원은 자신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첫째, 대의원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조직력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대의원들의 조합간부라는 인식이 결여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대의원이 조합원의 고통을 노

동조합에 일리고 노동조합의 결정과 제안을 조합원에게 교육 및 전달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단지 대의원대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거수기로서의 대의원은 지양해야 할 모습이다. 그 동안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의 참여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의원 스스로가 조합간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노동조합의 위상은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셋째, 자주적인 대의원이 돼야 한다. 사측의 탄압에 굴하거나 주위의 감언이설에 넘어간다면 그는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의원이 돼야 한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이러한 대의원들의 결의의 장이 돼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토론은 치열하게 결정된 사안은 신속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석부위원장 - 김혜관

먼저 조직개편저지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투쟁에 감사 드립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8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모범조합간부상을 정립하고, 기본부터 지키는 조합간부가 되기 위해 일대 해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에 대한 일반 조합원의 시선이 굵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조합사업과 조합간부의 활동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이 상당부분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대 집행부가 향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모범을 창출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 동지여러분께 단순히 참여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해 조합원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지지를 유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조합원 여러분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적과의 싸움은 쉽습니다. 집행부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비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부위원장 - 정홍근

노동으로 시작되는 노동자란 이름은 개인의 명예로운 가치 속에서 당당한 자신의 삶을 영위 시켜주며 더불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에게서 서로를 어울리게 하는 존경과 올바른 모습으로 세상 삶의 척도이기도 하며 틀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확립화로 흔들리는 경제 만능주의의 세상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인력감축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속에 진행됐던 사측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은 우리 생존권의 박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니 조합원으로서 우리 38,000여 조합원 동지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그리고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장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일당 저지에 냈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 홀로 흔들리기 보다는 우리 모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신의 넉넉한 위치는 자신의 생존권 보장과 함께 만들어 집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복지, 임금, 생존권 등 일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의 항상 동지들과 함께 동지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위원장으로 남겠습니다.



조직개편저지투쟁 상황일지

- ◇ 2003. 1.21 고용안정위원회 개최해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 강력항의.
- ◇ 2003. 1.22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및 조직국장 긴급 회의,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및 조직국장, 중앙본부 상집간부 철야 농성.
- ◇ 2003. 1.23 사측은 경영설명회를 통해 조직개편 내용 전달(지방본부 및 지부 폐지내용), 노동조합 반대 입장 표명.
- ◇ 2003. 1.23 ~ 24 전국 지부장.분회장 본사 상경투쟁 및 조직개편저지투쟁 결의대회 개최.
- ◇ 2003. 1.24 사측에서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지사 유지시키고 소속은 변경), 노동조합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 2003. 1.27 전국지방본부 위원장 회의에서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기로 결정.
- ◇ 2003. 1.27 사측, 2차 수정안 제시(지역본부 이하 하부조직은 현행유지), 노동조합은 사장 부재 상태, 구두 보고 등 신빙성이 없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키로.
- ◇ 2003. 1.28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 2003. 2.5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조직개편 발표.
- ◇ 2003. 2.5 쟁의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요구 관철에 따라 쟁대위 해산결정.

2003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

월	효도휴가비	성 과 급
1월	100%	
2월		50%
4월		경영성과급(0~150%)
6월		100%
8월		100%
9월	100%	
11월		100%
계	200%	350% + (0~150%)

지급계획: 1) 효도휴가비: 급식통근비 계좌
2) 성과급: 급여계좌

* 경영성과급은 사장 경영성적에 따라 지급을 결정
2003년도 차등지급율은 노·사간 별도 협의로 추후결정

가족과 함께 인체의 신비함을 다녀오소서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회의, 농성 등으로 늦은 귀가가 다반사였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실제 진짜 사람의 신체가 해부되어 있는 전시회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교육에 좋겠다는 생각과 가족들에게 그 동안 잃은 점수를 만회해보자는 생각에 전시회를 갈 것을 제안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나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교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인간의 신체 구조 모두가 각 부분별로 완벽하게 표현화되어 있어 인체의 복잡하고도 완벽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 중요성, 해부학의 위대함,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 과학의 신비를 제공한 신체 기증자들의 숭고함 등 한마디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다.

전시회가 얼마남지 않아 아쉽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아바

가 되기 위해 반드시 추천하고픈 생각에 잠시 안내를 드립니다.

- **관람일정:** 2003년 3월 2일까지
- **관람장소:** 서울 과학관 (서울대 병원 영안실 건너편, 창경궁 옆)
- **교통편:** 주차공간 협소(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에서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 좌측 창경궁 방향/도보 5분)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9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8시)
- **관람료:** 성인 10,000원, 중고생 6,000원, 초등생 5,000원

참고로 이 전시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명이 관람하였고, 한국 순회전은 현재까지 140여 만명이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조규상 <중앙본부 선전국장>



사무처장 - 양정우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사무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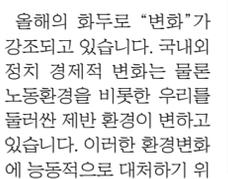
그 동안 사측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원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섭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교섭, 투명한 교섭, 정책과 조직이 수반되는 교섭이 되도록 하고 교섭도중이나 합의 후 현장 여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 현업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괴리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복지제도도 임금현황 분석을 통해 민영화 이후 복지제도 후퇴나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복지기금 활성화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합원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되돌아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조합중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며 조합운용의 존폐가 걸려있는 전일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자립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을 운용 토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 안창식



올해의 화두로 "변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적 변화는 물론 노동환경을 비롯한 우리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통신노동조합에서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8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삼아 향후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당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정책기획실에서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면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구함은 물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책에 대비한 장단기 정책과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력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노동조합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실현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책 노조'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직처장 - 류준웅

안녕하십니까? 조직처장 류준웅입니다. 당당한 노동조합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등한 노사관계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당당할 수 있고, 사측의 공세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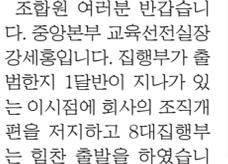
조직처는 우리의 힘을 강화하고, 때로는 부당한 사측 행위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선전 조직인 지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부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지부장과 부서장들이 움직일 때 노동조합 조직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부 조직활성화에 최우선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 조직의 약점이 무엇인가? 강화 방안이 무엇인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조직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영 KT는 과거의 공기업과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조직강화를 일상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투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을 하겠습니다. 투쟁!!

교육선전실장 - 강세홍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 강세홍입니다. 집행부가 출범한지 1달반이 지나가 있는 이시점에 회사의 조직개편을 저지하고 8대 집행부는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더 험난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의 현실에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조직개편저지는 조합간부들에게 단결의 기회였으며, 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변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대 집행부의 탄생도 그러한 변화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노사관계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민영KT에 있어서 노사간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민영KT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만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민영KT의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의 단결과 조합간부들의 단결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조합원들의 열렬한 고용안정 쟁취를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